

# 호남권 생산·소비·수출 '트리플 악화'

### 한은 1분기 경제동향 분석...기아차 휴업 등 제조·서비스업 ↓ 여수 국가산단 입주 기업들 증설·투자로 설비투자 유일 상승 1~2월 주택매매 거래량 35.6% 증가세 보인다 코로나로 주춤

올해 1분기(1~3월) 호남권 경제가 제조업 생산·소비·수출부문 모두 감소하며 '트리플 악화'를 기록했다.

지난 2018년 3분기부터 1년 6개월 동안 '보합' 수준을 유지하던 지역 경제가 코로나19 파동으로 급격한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것이다.

30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발표에 따르면 '2020년 1분기 경제동향 모니터링'에 따르면 광주·전남·전북지역을 포함한 호남권 경제는 지난해 4분기와 비교해 생산·수요 부문이 악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 보면 대구·경북권 경제가 '큰 폭 악화'를 기록했고 호남권과 수도권·강원권·제주권은 '악화' 중정권·동남권은 '소폭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호남권에서는 석유화학·자동차 등 제조업과 서비스업 모두 생산이 감소했다. 중국산 부품 부족 등의 이유로 기아차 광

주공장과 현대차 전주공장이 지난 달 가동을 중단했고,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내부공사를 하며 생산량이 줄어들었다. 반면 전남지역 주요 조선업체의 지난 달 수주잔량은 지난해 동기보다 9.8% 늘어 증가세를 보였다.

서비스업 생산은 제조업보다 큰 감소폭을 나타냈다. 감소한 업태는 도소매, 숙박·음식점·레저·운수업 등 전반적이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광양·매화축제·구례 산수유꽃축제 등 굿즈급적 3월 축제가 줄어들어 연가된 영향이 크다.

1~2월 호남권 주택매매 거래량은 지난해보다 35.6% 증가했지만, 코로나19 창궐로 분양이 연기·취소되고 부동산 거래도 주춤하면서 전분기 수준을 유지했다.

자동차 생산 차질과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는 소비 감소로 이어졌다. 광주·전남 소비자심리지수는 두 달 연속

### ■1분기 권역별 수요

	소비	설비투자	건설투자	수출
호남권	▼▼	▲	▼	▼▼
수도권	▼▼▼	◇	▼	▼
동남권	▼▼	◇	◇	◇
충청권	▼▼	◇	◇	▲
대경권	▼▼▼	◇	◇	▼
강원권	▼▼	◇	◇	▼▼▼
제주권	▼▼▼	◇	◇	▲

\*전분기대비(단,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방향성 및 변화 정도를 기호로 표시하였으며 ▲, ◇, ▼는 각각 증가, 보합, 감소를 나타냄 (자료:한국은행)

하락세로, 3월 지수는 지난 달보다 19.3포인트나 하락한 79.7을 기록했다. 단 한은 측은 정부가 6월까지 자동차 개별소비세를 70% 인하하고 4~5월 아파트 입주물량이 8.3% 늘어나면서 향후 소비가 소폭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올 들어 광주형 일자리 합작법인 자동차공장이 착공되고, 광주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공사가 본격화됐지만 건설투자는 소폭 감소했다.

호남권 건축 허가 및 착공면적은 지난 분기에 비해 각각 42.9%, 10.3% 감소하는 등 민간부문 투자가 부진했기 때문이다.

호남권은 1분기 동안 수도권을 포함한 7개 권역 가운데 유일하게 설비투자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비투자에는 여수 국가산업단지 입주 기업들의 대규모 증설과 제품 개발 투자가 큰 몫을 했다. 여천NCC는 7400억원을 들여 공장을 증설하고, LG화학과 GS칼텍스도 고부가가치 제품을 개발·생산하기 위해 내년까지 각 2조원대 투자를 단행한다.

석유화학과 자동차 제조기업 등은 공급과잉과 수요부진, 수출단가 하락으로 수출이 감소하고 기업자금 사정 역시 악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1~2월 석유화학제품과 철강제품 수출단가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각각 6.1%, 14% 하락했다.

한은 광주전남본부 관계자는 "호남권 경제는 지난 2018년 2분기 '소폭 개선'을 나타낸 뒤 6분기째 '보합'을 이어갔지만 코로나19 여파로 '악화'로 돌아섰다"며 "제조업과 서비스업 생산은 이번 분기보다 부진이 심화될 것으로 보이며 수출도 감소세를 지속하고, 소비는 소폭 증가, 설비·건설투자는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 코스피 1717.12 (-0.61)    ↑ 금리(국고채 3년) 1.10 (+0.04)
- ↑ 코스닥 542.11 (+19.28)    ↑ 환율(USD) 1224.40 (+13.80)

## 광주·전남 중소기업 4월 경기전망 급락

### 중소기업중앙회 조사 전년비 27포인트 하락

코로나19 사태에 광주·전남지역 중소기업의 경기전망이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 본부가 지난 13일부터 19일까지 광주·전남 중소기업체 190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4월 경기전망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업황전망 건강도지수(SBHI)는 전월(80.6) 대비 13.5포인트, 전년 동월(94.1)에 비해서는 27.0포인트 급락한 67.1로 나타났다.

경기부진이 깊어지는 상황에서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으로 내수와 수출 부진이 중첩된 결과로 분석된다는 게 중소기업중앙회 측의 설명이다.

지역별로 광주는 전월(81.5) 대비 15.5포인트 하락한 66.0으로 나타났으며, 전남은 전월(79.1) 대비 10.0포인트 하락한 69.1로 나타났다.

업종별로 제조업은 전월(76.6) 대비

5.3포인트 하락한 71.3을 기록했고, 비제조업은 전월(83.5) 대비 19.6포인트 하락한 63.9로 조사됐다.

항목별로는 내수판매전망이 78.4에서 64.2로 하락했고, 수출전망도 81.3에서 57.9로 떨어졌다. 경상이업전망은 72.4→60.3으로, 자금사정전망은 70.5에서 58.4로 모두 전월에 비해 대폭 하락했다.

특히 수출전망의 경우 전월(81.3) 대비 23.4포인트, 전년동월(98.0) 대비 40.1포인트 급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역 중소기업들은 코로나19로 가장 큰 경영으로 사향으로 내수부진(82.6%)을 꼽았고, 이어 인건비 상승(43.7%), 업체간 과당경쟁(42.1%), 자금조달 곤란(40.5%), 판매대금 회수지연(28.4%) 등 순이었다.

코로나19 여파가 시작된 지난 2월 광주·전남 중소기업 평균가동률은 67.9%로 전월 대비 2.0%포인트 하락했다. 광주는 전월 대비 2.0%포인트 하락한 66.0%, 전남은 전월 대비 1.5%포인트 하락한 70.8%의 가동률을 보였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예비 전문직 대출 길 열렸다    농협 전남본부, 농촌 인력 부족 해결 위해 적극 나서

### 광주은행 대출 상품 출시 최저 연 3.15% 금리 적용

광주은행(은행장 송중욱)은 31일부터 전자자격 취득 후 취업·개업 등 사회 정착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예비 전문직 신용대출 상품'을 판매한다고 30일 밝혔다.

'예비 전문직 신용대출'은 전자자격 취득 후 취업(개업)까지 공백기간 동안 생활자금·사회정착 자금을 지원하는 특화상품이다. 판매 대상은 예비 의사·약사, 공무원·임용고시 합격자, 전자자격 취득자 등이다.

대출 한도는 최대 5000만원이며, 상환 방법을 개인별 자금계획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은행 거래실적에 따라 최저 연 3.15% 금리를 적용받는다. 자격증 별 합격 증빙 서류를 지참하고 광주은행 영업점을 방문하면 된다.

박기원 영업기획부장은 "소득증빙 부족으로 대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전문직 합격자 고객의 금융애로를 해소하고자 이번 상품을 출시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선보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김석기 본부장 등 농협 전남본부 임직원 50여 명이 30일 진도 대파밭에서 수확을 돕고 있다. (농협 전남본부 제공)

### 올 중개인력 목표 17만명 '알뜰 농사 지원' 발대도

농협 전남지역본부가 코로나19 여파로 일손 부족에 시달리는 농가를 위해 올해 중개인력 목표를 17만명으로 세웠다.

전남본부는 지역농협이 운영하고 있는 농촌인력중개센터(영농작업반)를 통해 국내 인력 17만명을 중개할 방침이라고 30일 밝혔다.

올해 인력중개에 참가하는 지역농협은 여천·정남진장흥·해남옥천 등 35곳이다. 지난해 월 평균 중개인력은 1만5000명

으로, 5~6월·9~10월 영농철에는 월 2만명 이상이 증가했다. 지역농협은 한 해 동안 5000명에서 많게는 1만명의 인력을 중개하고 있다.

올해 중개 목표는 전남 농가인구(30만명)의 절반 수준인 17만명으로, 전년(15만1000명)보다 1만9000명(12.5%) 늘었다.

전남본부는 귀농준비자, 청년농 등으로 '농촌 인력풀'을 구성해 외국인 근로자 수요를 대체할 방침이다.

한편 전남본부는 다음 달 '알뜰 농사 지원 발대식'(가칭)을 열고 본격적으로 영농철 일손을 돕는다.

'알뜰 농사 지원' 참가자들은 4~6월 봄철과 9~11월 가을철 일손돕기와 마을 환경정비, 농기계 수리 봉사, 기업체와 1사1촌 맺기 등에 동참한다.

30일 농협 진도군지부와 서진도농협 직원 50여 명은 일손돕기의 하나로 진도 대파밭을 방문해 수확과 손질을 도왔다.

김석기 전남본부장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농업인들이 인력부족 문제로 매우 걱정이 많다"며 "농협은 임직원 일손돕기, 농촌인력중개센터 활성화 등을 통해 농촌에 원활한 인력공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

## 전남 '쌀 순수익' 가장 낮다

### 전국 평균 보다 11만원 ↓

지난해 전남도민이 논벼(쌀)로 얻은 순수익은 10a(1000㎡)당 26만1940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벼농사를 짓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감소했지만, 총수입도 덩달아 줄어서 수익성은 별로 나아지지 않았다.

통계청이 30일 공개한 '2019년산 논벼(쌀) 생산비 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전국 평균 논벼 순수익은 10a당 37만9375원으로, 전년보다 -0.6%(2423원) 감소했다.

논벼 순수익은 1년간 논벼로 얻은 총수입에서 생산비를 뺀 금액을 말한다.

전남지역 논벼 순수익은 2년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전남지역 10a당 논벼 순수익은 전년보다 -8.0%(2만2727원) 감소한 26만1940원으로 집계됐다. 8개도 가운데 가장 낮은 금액이며, 전국 평균보다 11만원 넘게 뒤쳐졌다.

전남 논벼 순수익은 지난 2017년 29만7730원, 2018년 28만4667원, 2019년 26만1940원으로 매년 줄고 있다.

논벼 총수입 역시 10a당 102만5000원으로, 전년보다 8만4000원 감소했다.

### ■2019년 지역별 쌀 순수익

지역	순수익 (10a당, 단위: 원)
경남	50만6647
충남	47만9549
경북	44만5717
강원	38만8077
전북	36만2966
경기	35만5771
충북	33만5465
전남	26만1940
전국평균	37만9375

(자료:통계청)

논벼 순수익을 총수입으로 나눈 '순수익률'(25.5%)도 전국 평균(32.9%)에 크게 못 미쳤다.

지난해 전남 논벼 10a당 생산비는 -7.4%(6만1200원) 감소한 76만3200원을 기록했다. 전남 생산비는 8개도 가운데 5번째를 차지했다.

전남 논벼 생산비는 직접생산비 49만8000원과 토지이용비 등 간접생산비 26만5000원으로 나뉘었다. 직접생산비가운데 노동비가 17만9000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위탁영농비 12만9000원 등이 뒤를 이었다. /백희준 기자 bhj@

## ESS시공전문기업

# 태양광발전소 부지·시설 고가매입

**당사 및 당사관련사업소에서는**  
**소형(100kW~1,000kW) 중형(1,000kW~3,000kW) 대형(3,000kW이상)의**  
**태양광발전시설을 대량 매입증입니다**

● **매매대상** ●

- 개발행위 허가전 발전소
- 개발행위 허가중 발전소
- 현재 공사중인 발전소
- 현재 운영중인 발전소
- 1차 FIT 종료중 발전소
- 공충사육장 + 태양광
- 버섯재배사 + 태양광

선로 걱정 마시고 전화주세요!

당사에서는 **개발행위**(건축물 위 공작물 축조신고)를 **무료**로 해드립니다. (\*건축물 구조진단 비용은 유료)

**환경과에너지종합기술(주)**  
 전기공사업면허 광주 제00988호

**상담전화**  
 전국대표 1544-1926  
 010-7614-1055  
 010-2845-4754